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법무부	 경찰청	보도자료 2024. 5. 29.(수)
제주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전화 064-729-4422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공보담당자 전화 064-741-5411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공보담당자 전화 064-798-3071	
제목	무사증 입국 후 제주도를 이탈해 불법체류를 시도한 중국인들과 브로커 등 13명 구속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제11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약 4개월 간의 협력수사를 통해,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후 취업 등을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주도를 이탈하려는 중국인 9명과 신분증 위조 및 승선 안내 등 불법체류를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 2명,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총 13명을 검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 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으로 '24. 4.~5. 전원 구속기소하였습니다.

※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로, 제주도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은 30일간 제주도 내 체류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에서 이탈할 수 없음

● 수사한 결과, 브로커들은 중국인들로부터 1인당 약 1만위안~6만위안(한화 약 188만원~1,128만원)을 지급받고 이들이 사용할 신분증을 미리 위조한 후 배편으로 제주도를 이탈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검찰과 제주·부산출입국외국인청, 경찰은 '24. 1.경 첫 범행을 적발한 직후 부터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브로커들을 포함한 13명을 신속히 검거, 구속하였습니다.

●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 경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순번	구분	피고인	국적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제주도 이탈 시도 중국인	A(男, 55세)	중국	'24. 1.경 체류지역 확대 허가없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제주도 이탈 시도	'24. 5. 3. 구속기소	
2		B(男, 50세)	중국		'24. 2.경 체류지역 확대 허가없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제주도 이탈 시도	'24. 4. 3. 구속기소
3		C(男, 57세)	중국			'24. 4. 3. 구속기소
4		D(男, 52세)	중국	'24. 4. 3. 구속기소		
5		E(男, 32세)	중국	'24. 4. 3. 구속기소		
6		F(男, 41세)	중국	'24. 4. 3. 구속기소		
7		G(男, 57세)	중국	'24. 4. 3. 구속기소		
8		H(男, 44세)	중국	'24. 3.경 체류지역 확대 허가없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제주도 이탈 시도	'24. 4. 3. 구속기소	
9		I(女, 49세)	중국		'24. 4. 3. 구속기소	
10	브로커	J(男, 34세)	한국	A를 위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제주도 이탈을 위해 승선 안내를 하는 등 불법체류 알선 ※ J·K는 중국인 9명(미검거)을 같은 수법으로 제주도에서 이탈시킴	'24. 5. 3. 구속기소	
11		K(男, 34세)	한국		'24. 5. 28. 구속기소	
12		L(男, 41세)	중국		'24. 5. 28. 기소중지	
13		M(女, 43세)	중국		B, C, D, E, F, G를 위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제주도 이탈을 위해 승선 안내를 하는 등 불법체류 알선	'24. 5. 1. 구속기소
14		N(男, 31세)	중국		H, I를 위하여 신분증을 위조한 후 제주도 이탈을 위해 승선 안내를 하는 등 불법체류 알선	'24. 4. 30. 구속기소

※ 범행에 사용된 위조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등이 있음


2

수사경과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4. 1.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하여 목포행 선박에 탑승하려고 시도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브로커 1명을 적발하였습니다.
-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위 적발 직후에 회의를 개최하여 같은 수법의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 검거된 중국인들은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 후 제주도를 이탈하여 서울 등에서 취업하려고 마음먹고 SNS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1인당 약 1만위안~6만위안(한화 약 188만원~1,128만원)을 지급하면서 제주도 이탈을 의뢰하였고,
 - 브로커는 신분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중국인을 목포항 선박에 승선시키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후 검찰과 제주·부산출입국외국인청, 경찰은 '24.1.경부터 '24.5.경까지 약 4개월 간 협력수사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제주도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9명과 신분증을 위조해 건네주는 등 제주도 이탈을 알선한 브로커 4명 등 총 1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의 승선 검색 개찰구를 별도로 운영 중인데, 일부 중국인은 한국인의 신분증을 위조하여 한국인인 것처럼 한국인의 승선검색 개찰구 통과를 시도하다가 검거됨
- 검찰은 구속된 브로커들 및 중국인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후 '24.4.~'24.5.경 13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기소중지 하였습니다.

3 수사인의 및 향후계획

- 검찰과 제주·부산출입국외국인청, 경찰은 '24.1.경 첫 범행을 적발한 직후부터 수사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수사방향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브로커들을 포함한 13명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조직적인 불법 제주도 이탈 범행을 엄단하였습니다.
- 또한,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고,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별첨 1] 위조 신분증 사진

[별첨 2] 최초 적발 당시 CCTV 영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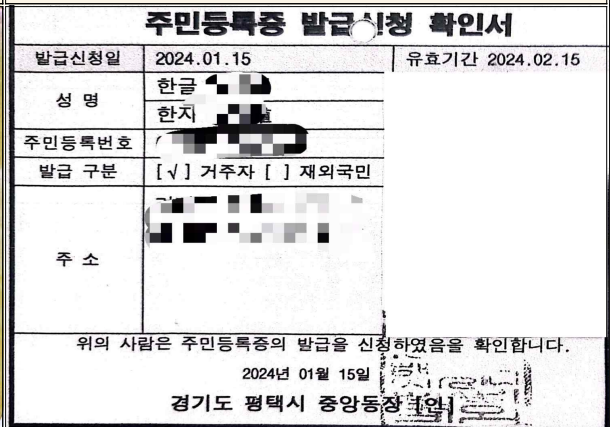
[별첨 1]

위조 신분증 사진



위조 외국인등록증

위조 영주증



위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위조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별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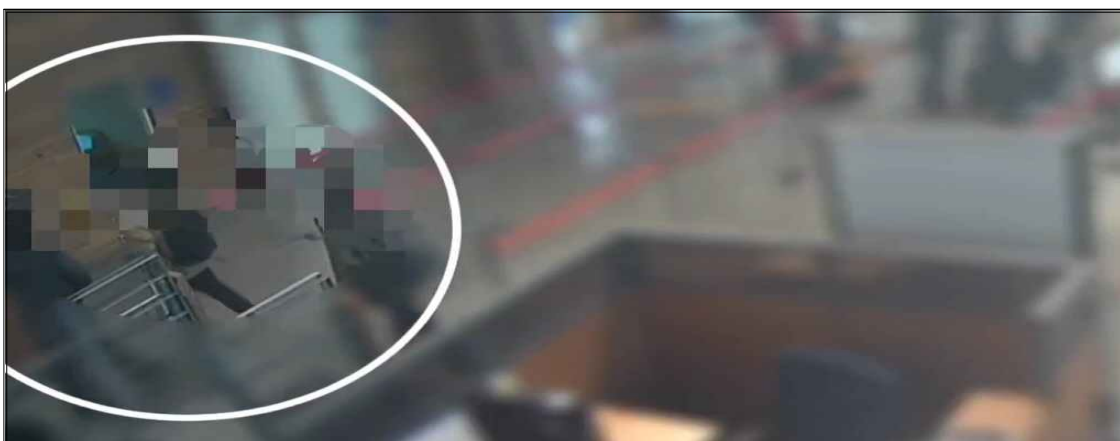
최초 적발 당시 CCTV 영상



한국인 승선검색 줄에서 중국인의 위조 신분증 제시 장면



승선검색하는 직원이 중국인을 불러세우는 장면



외국인 승선검색 줄로 인계되는 장면